

第172回 束草市議會(第2次 本會議)

市政質問 答辯書

1. 설악권(속초·고성·양양) 통폐합에 대한 방안
(김성근 의원 → 시 장)
2. 해양심층수 사업의 합리적 추진 촉구
(김강수 의원 → 시 장)
3. 로테오거리 활성화 관련 청학동 군부대
이전사업 조속추진 대책
(김성근 의원 → 부 시장)

束 草 市

市政質問 答辯書

質問의원	김 성 근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제 목	설악권(속초·고성·양양) 통합에 대한 방안	답 변 자	시 장

먼저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우길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시를 비롯해 설악권은 2000년부터 수년째 어족자원 고갈과 관광경기 위축으로 인구가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 설악권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설악권 통합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인근 자치단체를 포함한 설악권의 당면한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한단계 도약·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임에는 분명합니다.

지난 94년과 95년 우리시와 양양군을 대상으로 都·農 통합 추진시 우리지역 주민의 경우 '94년도 95.7%와 '95년도 94.1%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양양지역 주민은 '94년도 83.6%, '95년도 79.6%가 반대 입장을 보여 통합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를 중심으로한 설악권의 경우 오랫동안 동일한 생활권과 문화권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발전할 수 있는 지리적·생태적 환경과 능력을 겸비하고 있어 설악권이 통합된다면 명실상부 환동해권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합에 대한 지역간에 이견이 상존하는 것이 진실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행히, 최근 모 지역신문에서 실시한 설악권 통합문제에 대한 주민 여론 조사결과 설악권 주민 상당수가 설악권 통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양양지역의 경우 '94년 당시 15.9%였던 찬성의견이 이번 조사에서 45.3%로 나타나 반대 24.6% 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여 설악권 통합에 대한 여건이 차츰 조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시를 제외한 양양과 고성의 경우 통합에 대한 우려와 거부감이 상당부분 잔존하고 있고, 특히 고성의 경우 통합 찬성의견이 31.4%로 반대의견 27.8% 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나 통합반대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여타 지역에 비해 상당수를 차지하여 통합추진이 순탄치 만은 아닐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간 특히, 자치단체간의 통합은 인위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앞서 해당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공감대 형성과 정치적 합의 등을 토대로 해서 매우 신중하면서도 사려 깊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시는 10만 속초시민 절대다수가 숙원하는 설악권 통합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악권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등 여건이 조성된다면 설악권 통합을 위해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힘써 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말씀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악권 통·폐합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추진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악권 통합은 일부 지역에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인내를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이와는 별개로 설악권이 오래전부터 정서적 지리적으로 동질성을 가지고 생활해왔던 공동체적인 생활권역인 만큼, 통합을 공론화하기 보다는 공공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공식·비공식 교류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이것이 상호 동질성 유지와 확대의 가장 큰 교두보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설악권 4개 시군이 참여하는 설악권행정협의회와 4개 시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4개 시군의회 친선 체육대회, 직렬별 공무원 체육·문화교류전, 이·통장 한마음대회 그리고 민간주도의 각종 문화·체육·봉사 교류활동으로 이와 같은 정기적이고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설악권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더해지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악권 통합은 관 주도가 아닌 시민사회단체와 경제단체, 지역언론 등 민간이 주도가 되어 통합 공감대를 형성한 후 그 여건 하에서 행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통합방안이라 여겨지고, 이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합 추진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는

우선 먼저 거론될 문제점은 통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어 발생될 수 있는 지역간 주민이견에 대한 지역분쟁 야기입니다. 이 점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지역주민들과 폭넓은 의견수렴과 교환으로 통합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조사·분석해서 최대한 원만히 해결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통합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점은 지역간 통합에 따른 지역갈등 발생과 각종 혐오시설의 농촌지역 등의 집중설치에 대한 우려로서 이는 다양한 주민화합행사와 교류확대, 문화·정서 동질성 시책 확대개발·추진 등으로 중·단기적인 주민화합시책을 집중 실시하고,

혐오시설 설치는 최소화하지만 부득이하게 시설을 해야 할 경우 충분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해서 소외받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 째로 인근 시·군과의 학술세미나와 워크숍 개최에 수반되는 향후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통합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에서 주도 하기 보다는 민간에서 주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만약, 민간차원에서 순수한 의미에서 설악권 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학술세미나 또는 워크숍과 같은 행사를 개최하면서 예산지원 등의 행정지원을 요구할 시에는 관련 절차와 법률 그리고 주민대표 기관인 의회 의견을 들어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김성근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설악권 통폐합에 대한 사항'은 분명히 우리시민의 오랜 숙원이자 설악권의 항구적인 상생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 내야할 역사적 과제입니다.

각종 자원고갈과 내수부진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서남해권을 비롯한 타 지역권으로의 투자집중으로 인한 상대적 경쟁력 하락, 우수인력 외지유출과 연이은 인구감소 등 대내외적 환경은 설악권 통합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도록 점차 여건이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의 시기를 더욱 앞당기 위해서는 시 뿐만 아니라 의회와 민간차원의 시민 합심을 통해 자연스럽게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05년 7월 제주도 통합을 계기로 정치권 및 정부차원에서 전국의 행정구역 개편방안이 논의되면서 도시통합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어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 역시 설악권 통합을 염두에 두고 인근 지역과의 각종 교류 확대와 통합이전 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 등 설악권 통합을 위해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市政質問 答辯書

질문의원	김 강 수	소관부서	수질환경사업소
제 목	해양심층수 사업의 합리적 추진촉구	답 변 자	시 장
《 답변 내용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우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속초 미래발전 사업들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김강수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1일 하수처리 용량이 46,000톤인데 우기시와 관광객이 많은 성수기에는 1일 처리용량을 상회하고 있는데 사용허가가 가능한지와 기존에 승인받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환경부에 질의나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시설 설계당시('93. 2)의 환경부 인가된 설계하수량은 속초시의 도심권내 하수도가 우,오수 합류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최대 순수오수 처리용량은 46,000톤, 시간최대 유입수량은 68,000톤을, 우천시의 유입가능 수량은 119,000톤으로 설계 시공되어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광객이 많은 성수기와 우기시에는 우수의 유입으로 2007년 기준 일평균 49,427톤이 되어 순수 오수처리 용량인 46,000톤을 초과하고 있으나

우천시의 허가 기준인 119,000톤의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처리되고 있습니다.

- 속초시의 일평균 순수 하수량은 상수도 공급량 35,921톤, 지하수 사용량 3,597톤, 하수처리장 연계 처리수 632톤 등 총 40,150톤으로서 순수 오수처리량 이내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 2004년에 실시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2021년까지는 증설계획이 없으나, 향후 대단위 도시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금년 8월 이후 착수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의거, 만약 일부 시설 증설이 요구될시에는 단계별 증설(4계열 23,600톤 추가처리) 계획 추진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에따라, 향후 단계별 시설확장에 필요한 부지를 제외한 예비부지를 한시적으로 사용할수 있으므로 그 예비부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아울러 금년 8월이후 착수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일부시설 증설이 요구될시에는 2009년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나, 이것은 처리구역이나 시설용량에 대한 승인을 받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두번째와 세번째 질의하신 하수종말 처리장의 운영에 있어서 하수량 증가로 인하여 처리용량을 초과하였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민원발생대책 및 악취발생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기시에 유입되는 하수량은 순수 오수 처리용량을 초과하고 있으나, 우천시의 처리기준인 119,000톤 범위 내에서 처리되고 있어, 현재 설계처리 용량을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 우천시 초과유입되는 우수는 하수처리장내 포기침사지와, 최초 침전지 공정을 거치며 침사물과 헹잡물을 제거하고 방류토록 시설이 되어 있어 환경부의 하수처리지침대로 1차 처리후 방류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방류수질 향상을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고도처리사업은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법적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방류수질의 향상과 기준준수를 위하여 국·도시비 18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수처리공정의 개선과 노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 금년 4월 착수되어 시운전 기간을 포함하여 2010. 2월 준공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처리 방류수질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 10mg/ℓ,
 총질소(T-N) 20mg/ℓ,
 총인(T-P) 2mg/ℓ,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40mg/ℓ 이하로
 현격하게 방류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다음은 하수처리장의 악취발생 원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냄새발생 원인으로서는 하수처리시설의 경우는 처리시설중
 밀폐가 되지않는 포기침사지, 슬러지처리 계통의 일부 옥외
 노출시설에서 비산되는 하수냄새와

 - 잉여가스 소각과정에서 초기 점화시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누출되는 메탄가스가 있습니다.

- 음식물 처리 및 분뇨처리시설의 경우는
 - 음식물처리장은 차량입고시 반입구 개방에 냄새노출과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음식물 저장탱크 준설 등 청소시
 투입구 개방으로 확산되는 냄새가 있으며

 - 분뇨처리장은 초기 분뇨투입 과정에서 노출되는 냄새가 있습니다.

-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악취발생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 악취제거를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고도처리시설 공사내역에
 노출된 하수처리시설인 포기침사지에 덮개(지붕)와 탈취기를
 신설하여 비산되는 악취를 제거하고

- 노후된 슬러지처리 계통에 노출된 시설물의 교체와 탈취를 위한 포집설비를 신설할 계획이며
 - 잉여가스에 의한 발생하는 냄새는 금년 준공예정인 열병합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발생가스는 전량을 에너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 음식물 및 분뇨처리시설의 냄새는 현재 환경부와 협의 진행 중인 유기성폐기물 에너지시설 설치사업이 확정되면 현대화된 냄새제거 시설을 확장, 설치하여 해결할 계획이며
 - 음식물 및 분뇨 입고시 반입구 개방에 따른 냄새를 저감하기 위해 출입문을 고속셔터로 교체하고 기 설치된 악취제거용 탈취설비(바이오필터)를 보강하여 제거할 계획입니다.
- 하수도 법령에서 정한바와 같이 매5년마다 시행해야하는 하수도 용량에 대한 재산정 용역결과물에 하수용량의 초과로 인한 증설의 필요성이 담겨지면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2004년 5월 20일 승인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까지 우수를 제외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순수 오수처리 용량은 46,000톤/일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현 우리시의 도시발전추세와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 검토한 결과 우수, 지하수등 불명수를 제외한 순수 하수량은 40,150톤으로 추정됩니다

○ 특히, 시가 추진중인 각종 대단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 2010년 대포 제2농공단지조성 사업 완료로 하수량이 916톤
이 늘어나서 총 하수량이 41,066톤이 예상되고

- 2012년 척산온천지구 개발사업 완료로 하수량이 1,966톤
이 늘어나서 총 하수량이 43,032톤이 예상되며

- 2015년 대포항개발사업 완료로 입주가 될 경우 하수량이
3,000톤이 늘어나서 총 하수량이 46,032톤이 예상되고

- 2020년 소야지구 개발사업 완료로 입주가 될 경우 하수량
3,697톤 증가로 2021년부터 하수발생량은 총 49,729톤
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하수관거내 불명수 유입실태 확인
및 개선사업으로 하수량 4,000 ~ 5,000톤이 감소된 총 42,327톤
정도의 하수량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2020년까지는 현재의
하수처리능력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증설이 요구될시 중장
기 계획으로 1회4계열 증설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장래 하수
처리 수급문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1회 4계열 증설시 하수처리량은 일일 23,600톤으로서
1일처리 능력은 총 69,600톤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 하수도 법11조3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 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이와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강원도지사와 협의여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 법조항은 하수처리 구역변경, 처리용량 변경등 사업계획 변경 시에 적용되는 법조항으로서 예비부지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는 하수처리 구역이나 처리용량이 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므로 강원도지사 인가사항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부지 사용수익 허가를 통한 해양심층수 개발 사업은 속초항을 통해 러시아, 북한,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활게, 활조개, 활어등의 축양사업을 추진하여 속초항을 활성화 시키며,

○ 속초해수욕장 주변에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사계절 해수체험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관광의 새로운 활역을 붙여넣는 동시에 생수 공장, 수산물 가공공장등을 설치하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개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강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市政質問 答辯書

質問의원	김 성 근	소관부서	건설과
제 목	로데오거리 활성화 등 청학동 군부대 이전사업 조속추진	답 변 자	부시장
[질문요지] ○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군부대와의 협의 결과, 군부대 이전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내용] ○ 평소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심은 물론 주민들의 민의를 바르게 전달하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김성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군부대와의 협의 결과, 군부대 이전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 또한 이전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도 시정 질문을 통하여 여러 차례 주시면서 촉구하신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뜻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 다만 관련 부대가 특수 목적의 부대로서 군사적 보안문제와 관련하여,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먼저 추진상황과 협의 결과, 향후계획, 이전이 언제까지 가능한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그간 추진과정에 대하여는 골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최초 이전을 위한 협의 시작은 2004년 2월이지만 군부대와 이전조건에 관한 이견의 폭이 커서 답보 상태에 있다가
- ▶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우리시 “ 100대 중점추진과제 ” 로 선정하였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이전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을 가지고, 관련 부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착실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 ▶ 그동안 추진한 주요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 ☞ 2006. 10. 23 관련 부대와 제 협의를 시작으로
 - ☞ 2006. 12. 4부터 2007. 11월까지 말단 기초부대인 호송대부터 최고부대인 정보사령부까지, 여러 차례의 협의 및 조정 과정을 통하여 상호간 이전에 관한 원칙적 합의안을 마련 교환 하였고,
 - ☞ 2008. 1월 상호합의각서 안을 마련하여 국방부에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 ☞ 군사시설의 내용에 대하여 국방부의 조정요청이 있어, 정보사에서 일부 조정을 통하여 대안을 마련, 2008. 5월 조정안을 국방부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 ☞ 또한 시기를 앞당기고자 시장님께서 최근 국방부를 방문,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설명하시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국방부로부터 상호합의각서 안에 대한 승인이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착수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용역비는 6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 ▶ 그러나 이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최종 검토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고 또한 **관련부대에서 보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만 기부대 양여 방식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등가원칙에 의한 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 또한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대내, 주거용 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은 우리시 관내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제공함으로써, 정주민구가 감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 ▶ 이전의 완료시기는 국방부 승인이 나면 즉시 합의각서를 정식으로 체결하고, 사업을 착수 3년 이내에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 지금까지 주셨던 많은 고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